

고향 광주 은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

“광산업·남도음식·문화, 해외기업에 적극 알릴 것”

9개국 13개 법인서 지역제품 해외 판매 강화 계획

광주 출신 재외동포 기업가인 박종범 유럽 한인총연합회회장은 23일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린 제12차 한상대회에 규모 있게 성대하고, 알차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세계한상(韓商)대회 운영위원회’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박 회장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호남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한상대회인만큼 역대 대회보다 더 많은 해외동포 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이번 광주 제12차 한상대회는 광주의 주요 산업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LED 등 광산업과 자동차, 백색 가전, 남도음식, 문화콘텐츠 등의 광주지역 주요 산업이 대회기간 동안 재외동포

기업 및 해외 기업 등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광주시와 전남도 등 행정기관과 지역 기업들도 광주 산업을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한상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면 많은 한상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고향 광주를 위해 해외의 많은 한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권유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오스트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산그룹 내 해외 9개국 13개 법인장들도 모두 참석하도록 지시했으며, 법인이 소재한 유럽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현지 국가의 기업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유럽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9개국에 13개 법인을 둔 영산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완성차와 타이어, 휠 등 자동차 부품, 산업용 장갑, 석유화학 제품, 보



일려 등 주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 한상이다. 또한, 엔지니어링, 신재생에너지 기업, 자동차 부품, 산업용 장갑, 석유화학 제품, 보

차 부품·조립공장 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박 회장은 “최근 향토기업인 금호타이어의 타이어를 구입해 아프리카 세네갈·카메룬·말리 등에 판매하고 있는데 상당한 매출고를 기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광주의 LED를 동유럽 국가 등에 판매하는 등 지역 및 향토기업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 최대 규모의 한상기업을 일군 박 회장은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장과 유럽 한인총연합회장을 맡아 한인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한인문화회관 건립을 주도했으며, 지난해에는 한-오스트리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인 동포 50년사’를 발간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양국 간 친선과 문화교류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로부터 금성훈장을 받기도 했다.

최환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안행부 인사서도 광주·전남 홀대

1급 본부 실국장급 한명도 없고 2급은 한직에

세정부 들어 처음 단행된 안전행정부 실국장급 인사에서도 광주·전남 출신 공직자들이 대부분 한직으로 밀려나면서 박근혜 정부 인사에서 호남 홀대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안전행정부의 실국장급 인사에서 1급이 가는 본부 실장급에는 광주·전남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었다.

1급으로 이번에 안행부로 자리를 옮긴 이병욱(행시 24회) 광주시 부시장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발령됐다. 2급 국장급에는 비교적 한직으로 분류됐었던 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국장인 윤재철(29회)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 안전정책국장에 정종재(32회) 선진화기획관 등 2

명이 발령되는데 그쳤다.

광주시 한 공무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장차관급 인사는 물론 안전행정부 1, 2급 인사에서까지 호남 홀대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대량평 인사는 결국 공명불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출신 고위공무원단으로는 안전행정부 김영선(26회) 지방연수원 교수부장, 송영철(28회) 감사관, 황서중(31회) 인사정책관, 강신기(34회)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 문인(기술고시 20회) 국토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국장, 송상락(33회) 방위사업청 감사관 등이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동아시아 문화도시, 광주 등 6곳 유치 경쟁

광주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가 ‘201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유치 경쟁을 벌이게 됐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201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주·전주·부산·부천·경주 등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나머지 한개 도시는 문화부에 임명을 요구해 도시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유럽연합이 1985년부터 문화수도도 선정해 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2014년에는 한국, 중국, 일본이 각 1개 도시, 2015년엔 중국 1개 도시, 2016년엔 한국 1개 도시, 2017년엔 일본 1

개 도시를 선정한다.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선정되면 1년 동안 해당 도시에서 한·중·일 문화교류 행사를 집중적으로 열린다.

문화부는 올 하반기에 열리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5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가문화프로젝트 사업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14년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10월 ‘세계 한상대회’ 광주만의 산업·축제 부각시킨다

운영위원회, 추진방향 설정

대회장에 흥명기 회장 선출

오는 10월 29일~31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12차 세계한상(韓商)대회’ 대회장이 선출되고, 대회 추진방향이 설정됐다.

재외동포재단은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각국 동포 경제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재외동포 기업인 흥명기(80) 유라코트 회장을 제12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으로 추대했다. 흥 회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특수페인트 제조 기업 유라코트를 이끌며 연매출 2억달러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 한상이다.

운영위는 또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제12차 세계한상대회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한상대회 본부 사무국은 우선 이번 한상대회가 호남권에서는 처음 열리는 만큼 광주만의 산업과 지역 축제 등의 특색을 부각시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회기간 중 광산업과 자동차, 그린에너지, 백색 가전, 문화산업, 청정 농수축산업 등의 광주·전남지역 산업체와 한상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각국 재외동포 경제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와 리딩CEO 포럼이 열렸다. 회의를 마친 운영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회 비즈니스와 연계를 모색하고, 대회 기간 중 개최되는 제20회 광주 세계김치문화 축제와도 연계해 남도 음식을 해외에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각종 회의 및 포럼,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선정됐다. 대회기간 중 한상대회 운영위원회가 열고, 국내외 리딩 CEO들이 참석하는 ‘리딩 CEO포럼’,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 등이 개최된다.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는 기업 전시회와 참가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는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지역

별·산업별로 해외 한상과 국내 기업인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인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및 멘토링 세션’ 등이 열릴 예정이다.

총 45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될 전시회의 경우 광주시 특화산업인 식품 및 광산업·전자산업 등이 주요 아이템으로 선정되고, ▲한식 ▲수출식품 ▲웰빙식품 등 다양한 식품 테마관도 조성된다.

본부 사무국은 이번 한상대회에 해외 1000여명, 국내 2000여명 등 총 3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던 제11차 한상대회에는 47개국 3222명이 참여했으며, 개최지 지역경제 파급효과로는 생산·유통효과 104억원, 소득 유통효과 17억원, 고용유통효과 122명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2014년 제13차 세계한상대회는 단독으로 제안한 부산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부산시는 지난 2006년, 2007년, 2011년에 이어 내년까지 4차례 세계한상대회를 치르는 최다 개최지가 됐다.

최환일기자 cki@kwangju.co.kr

국방장관 앞으로 ‘괴문서·백색가루’ 배달

국방부 테러 시도 규정... 군·경, 발신자 추적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백색가루가 담긴 ‘괴문서’가 국방부에 23일 배달됐다. 이 소포에 든 백색가루는 조사결과 시중에서 유통되는 밀가루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군은 이번 사건을 ‘주요 인사에 대한 테러 시도’로 규정하고 경찰 등 관련 수사기관과 함께 발신자 추적에 착수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소포에 동봉된 백색가루를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가 편광현미경, 적외선분광분석기 등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일반 식용 밀가루로 확인됐다”며 “관련 사실을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팀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수취인으로 명기된 백색가루와 비방유인물이 담긴 ‘괴문서’가 용산 국방부

청사로 배달됐다.

소포를 누가 보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발신인은 표기되지 않았다.

육안 검사결과 동태문 유체국 소인이 찍힌 소포에는 어른 주먹 크기 만한 백색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가 들어 있는 것이 발견됐다.

동문련 유인물에는 지난 19일 삼각지 일대에서 살포된 괴문서와 동일한 “김관진은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 북의 최고존엄을 함부로 건드리며 전쟁 광기를 부리다가는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된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국방부는 서울 용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김 장관을 비방한 유인물과 백색가루가 든 소포 발송인을 추적 중이다.

연철뉴스

새정치경제아카데미

개소식 및 1기 입학식에 초대합니다

희망, 어디에 있을까요?

새봄의 새싹같은 희망나무를 키울 때입니다. 아니, 바로 선생님이 희망나무입니다. 사람이 희망인 호남, 우리 함께 손잡고 더불어 숲이 되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영혼인 공인을 키우는 백년대계를 시작합니다.

2013년 4월 29일
원장 정진욱

공동초청인
| 교문 | 임학백, 최영관, 최 협 | 이사장 | 조정관 | 상임이사 | 이용빈 | 이사 | 김경진, 김대현, 김대호, 김동채, 김범태, 김 윤, 라두현, 류재한, 민형배, 박두규, 박선희, 박 중, 박찬용, 서삼석, 서일용, 서한기, 오기만, 윤병철, 이개호, 이명철, 이만태, 이병훈, 이정남, 임우진, 정순남, 정용식, 정진욱, 정희곤, 조 민, 조운기, 조한규, 진재영, 최영호, 최원일 | 원장 | 정진욱 | 사무총장 | 김대현(일수)

일 시 2013년 4월 29일(월) 오후 6:00~ 9:00 (본 행사는 7시부터 시작합니다.)

장 소 새정치경제아카데미 강의실

문의 Tel 062) 225-0933 H · P 010-2257-5799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750 유정천사우나 2F
매달수강생수시모집

새정치경제아카데미
(유정천사우나 2F)

삼익세라믹@
구 도청 중심사 화순
● 금호 ● 학동 ● 전번로
 정례식장 중심사역

교수진

김대현(일수) 국회의원보좌관, 정치컨설턴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소장
김 형 정치평론가
김재근 정치학 박사, 前국회의원
김주환 연세대학교인문홍보영상학부 교수, 전KBS 백인토론회사회자
공진석 조선대학교정치외교학과, 정치사상
류재한 전남대학교불문과교수
류재한 광산구청장, 전남대학교사회학박사
민형배 박진영스피치문화연구소대표, 前KBS/교통방송이나운서
박장기 '혁신하러한국경제' 저자, 직결민주연구원이사회회장
유성업 국회의원전북정읍
유종필 서울시관아구청장
유창선 시사평론가, 사회학박사, 오마이뉴스고정칼럼니스트
윤진호 서울도시연구소대표
이개호 F1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前전라남도행정부지사
임두만 정치평론가
정병준 KBS기자, '취재파일2002 광주시장선거' 인문활용하기 저자
정순남 前전라남도경제부지사
정창교 정치컨설턴트, '당선노하우100' 저자, 권역구청 정책실장
조정관 전남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조한규 MBN정치담당해설위원, 호서대학교창업대학원초빙교수
차승수 서울금천구청장, 前청와대 시민사회수석
황주홍 국회의원영남, 강진, 前강진군수3선

이카테미구성

교문단
인학백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세계정치학회집행위원
최 협 전남대학교명예교수, 前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최영관 전남대학교명예교수, 前광주YMCA이사장

이사장
조정관 전남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상임이사
이용빈 의사, 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이사장

이 사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이인
김대현 (사)미래도시구상연구소사무처장, 前국회의원보좌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소장
김동채 (주)휴먼대표이사, 여수경찰청공공대표
김범태 조선대학교경영대학원초빙교수,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김 윤 희망코리아정치연대공동대표, 前민주당시초졸지구당위원장
라두현 전국상업연합회나주시사무국장, 나주문화예술단체장
류재한 전남대학교불문과교수, 아시아문화학회회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박두규 백운산시기기시민행동대표, 前광주YMCA사무총장
박선희 광주문화재단근무, 前한국회화발전연구회장
박 중 아이퍼스트아동병원원장, 광주시영양위원회이사장
박찬용 전남대학교정치학박사, 광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운영위원
서삼석 前무안군수
서일용 前전남도의원
서한기 변호사, 21세기법무법인
오기만 전남경총사무총장, 세계평화청년교류센터회장
윤병철 순천대학교행정학과 겸임교수, 前순천시의원3선
이개호 F1대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前전라남도부지사
이명철 (주)기담대표, 광주발전시민회의회장
이만태 한중상업연구원원장, 중국인민대학교철학박사
이병훈 前광양군수, 前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이정남 호남대학교교수, 前광주시의회부회장
임우진 민주당광주서구을지역위원장, 前광주시행정부지사장
정순남 목포대학교교수, 前전라남도경제부지사
정용식 중앙교육원원장, 광주환경운동연합집행위원장
정진욱 인터넷서점알라딘이사, 희망코리아정치연대공동대표
정희곤 광주광역시의회교육위원
조 민 조선대학교언어교육원교수, 역사학박사
조운기 해임는광주공동대표, (주)네스트CEO 이사
조한규 MBN정치담당해설위원, 호서대학교창업대학원초빙교수
진재영 노무사, 前전남대학교총학생회장
최영호 남구청장
최원일 푸른역사아카데미운영위원장, 前청와대행정관

원 장 정진욱 **사무총장** 김대현(일수)